

불길한 예견

지난 연말이었다. 수감된지 10년정도 된 모범수로 있는 재소자 B를 만나러 교도소 대기실에서 수속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앞서서 수속을 하면서 대기중인 3명의 동양인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다.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는 모르지만 한인타운의 방황하는 청소년무리중의 하나로 보여 마음이 불안간 찝찝하다. 분명 친구를 면회왔을텐데 희희덕거리며 면회수속을 하는 태도가 그 안의 면회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있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연민의 마음을 볼수가 없는것같아 나는 괜히 심사가 뒤틀린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털어버리며 수속을 마치고 면회실에 들어가 밝은 얼굴로 들어오는 B를 반갑게 맞으며 우리는 사각형 테이블을 놓고 마주앉았다. 그런데 우리가 앉은 곳에서 서너테이블을 건너 그 세친구가 만나러온 재소자가 들어와 앉았다.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시선이 가자 B는 “재 새로 들어온 한국 아이 예요” 하며 설명을 하는데 17살때 2년전의 사건으로 들어오게된 내가 아는 아이들중의 한명이었다. 이미 이렇게 만나게 될줄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영 좋지않았다. 슝슝하다 못해 누구에게 인지는 모르지만 화가 나는 나를 느낄수있었다.

이유는 바로 그 아이와 어울려다니던 아이중 한아이는 아직도 내마음을 찡하게 이프게 하는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그도 역시 같은 케이스로 형을 받고 수감중이다. 그 아이를 만났을때는 13 살 어린 소년이었다. 아주 잘생기고 착하게 생긴 아이였다. 한국에서 갓온 그아이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 미국으로 올계획으로 여행비자로 오다가 아빠가 그만 공항에서 걸려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 아이의 삶의 방황과 혼란의 시작이 될줄은 그 엄마도 아이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느닷없는 사고로 인한 아빠없는 낯설고 물설은 미국땅에서 엄마와의 어려운 이민의 삶이 시작된것이다. 자신의 삶이 마치 꼬리얽은 연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끼다 땅에 쳐박히고 나뉠그러질것을 예견하듯 그는 학교도 가정도 적응하지 못하는 시간들속에서

몸부림을 쳤고 나는 그를 도우려고 무진 애를 써보았다. 처음에는 어리고 순진한면이 있어서 그런대로 상담에 잘 응하고 따라오는 듯하더니 그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의 틈바귀를 마치 더러운 바퀴벌레 처럼 비집고 들어오는 어두운 유혹의 손길은 너무나 강해 그는 결국 견디질못했다. 나는 그를 찾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그는 우리의 손길을 피해 달아나며 그렇게 숨바꼭질을 하듯 그런 인연으로 끝나버렸다. 그리고 마치 때만되면 보고하듯이 그 엄마는 지치고 힘들때 마다 내게 하소연을 하곤했다. 나는 아들도 엄마입장도 백번이해가 되어 누구에게도 무어라 할수없지만 그엄마에게 수없이 이야기했고 하소연을 했다 “엄마가 내게 협조하지않고 단호한 결정을 안내리면 그아이의 결국은 교도소입니다.”라고 ..나는 절규하듯이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엄마는 아무것도 할수없었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이를 내앞에 한번도 데려오지 못했다. 엄마자신도 아이가 겪는 처지와환경의 고통앞에서는 아무런 권위도 힘도 쓸수없는 무기력한 존재밖엔 안되었기 때문이다.그런 그엄마에게 나는 얼마나 많이 화가나고 힘들었는지 모른다. 아이의 끝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 엄마에게 예견한대로 아이의 한해한해가 망가져가는 것을 보는것은 내게 또다른 고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를 면회 해야하는 자리에 오고야 만것이다. 서너 테이블 떨어진 곳에 면회를 받고 있는 그 재소자가 내가 붙잡으러 다니던 그 아이의 과거의 시간속에 함께 했던 아이중에 하나였다는것이 나를 몹시 괴롭고 슬프게 하는 면회였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도 내주위에는 내가 하고 싶지않은 불길한 예견으로 부모에게 소리치고 절규해야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그들앞에는 무기력한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